

# 일본, 사우디 석유화학 적극투자

## SHARQ No.4 프로젝트 확대일로 ... 일본 위상 계속적으로 확대

일본의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우디 현지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석유화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세계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 기초산업공사(SABIC)와 Mitsubishi Group 등이 출자한 Saudi Petrochemical Development(SPDC)가 50%를 투자해 설립한 SHARQ(Eastern Petrochemical)는 사우디의 Al Jubail에 에틸렌 120만톤 크래커를 정점으로 하는 석유화학 콤플렉스(SHARQ No.4 프로젝트)를 건설할 계획 아래 본격적인 사업화조사(FS)에 들어간다.

SHARQ는 에틸렌 유도제품 부문에서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와 EG(Ethylene Glycol) 플랜트를 각각 3기씩 건설하는 투자계획을 추진해 왔다.

사우디에서는 2008년 완공 예정으로 사우디 Aramco와 Sumitomo Chemical이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통합 프로젝트의 FS도 실시하고 있어 세계 석유화학산업에서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SHARQ의 No.4 프로젝트는 SHARQ가 Saudi Aramco에서 Ethane, Propane 등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에틸렌을 생산한 뒤 PE 60만톤, EG 60만톤 플랜트에 공급한다. 또 프로필렌도 생산할 예정이어서 PP(Polypropylene)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액은 2000억엔 내외이며, 2008년 완공할 전망이다.

SHARQ는 1981년 사우디와 일본의 국가적 프로젝트로 설립돼 페르시아 연안의 Al Jubail에서 상류공정의 에틸렌 생산을 담당하는 Arabian Petrochemical(Petrochemya)과 하류공정에서 LLDPE 및 EG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LLDPE, EG 모두 1987년 1호기 가동을 개시해 1995년 2호기(SHARQ No.2), 2000년 3호기(SHARQ No.3)를 완공해 단계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왔다. 현재 생산능력은 LLDPE가 약 75만톤, EG가 135만톤이다.

SHARQ는 이제까지 에틸렌 유도제품 생산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으나 No.4 프로젝트에서는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에틸렌 크래커를 건설해 유도제품과의 일관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원료는 에탄 이외에 프로판 등이 도입되기 때문에 프로필렌을 생산한 뒤 PP 생산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사우디,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에서는 에틸렌 생산능력이 100만톤을 돌파하는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잇따라 추진돼 세계 석유화학산업에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 석유화학기업이나 무역상사가 착수한 사우디의 프로젝트로는 지금까지 SHARQ 이외에 메탄올 부문에서 Mitsubishi Gas Chemical과 Mitsubishi상사 등이 투자한 Saudi Methanol(AR-RAZI)이 4기 310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Mitsui상사, Mitsubishi상사 등이 투자한 합작회사가 2005년 메탄올 100만톤 플랜트를 완공할 예정이다.

Sumitomo Chemical과 Saudi Aramco는 5월 석유정제설비의 고도화와 연동해 에틸렌 130만톤, 프로필렌 90만톤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FS에 들어갔고 SHARQ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사우디의 석유화학산업에 있어 일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07/29>